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혁명사상 만세!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348호 [무계 제25857호] 주체106(2017)년 12월 14일 (목요일)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주체적국방공업발전의 최전성기를 앞장에서 열어나가는 기수, 돌격대가 되자 제8차 군수공업대회 참가자들의 맹세문채택모임 진행

자위적국방력강화의 력사에 투기할 승리와 영광의 대회를 아로새겨진 제8차 군수공업대회에서 제시된 당의 진취적과업을 높이 받들고 사회주의강대국의 존엄과 위용을 더욱 힘있게 펼쳐갈 국방공업 부문 과학자, 기술자, 노동자들과 일군들의 혁명적의지가 새차게 분출되고있다.

영광의 대회장에서 주체적국방공업발전의 최전성기를 열어나가는 데서 뛰어넘고나가야 할 불멸의 대강을 끝없는 격정속에 받아안은 진취적 대회참가자들은 위대한 혁명의 기치높이 자위적국방력을 백배로 강화하여 주체의 사회주의조선을 그 어떤 천후도 범접 못하는 세계최강의 핵강국, 군사강국으로 빛내어갈 불같은 결의에 넘쳐있다.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드리는 제8차 군수공업대회 참가자들의 맹세문채택모임이 13일 4.25분회관에서 진행되었다.

대중수동지, 노광철동지, 홍승무동지, 홍영철동지를 비롯한 제8차 군수공업대회 참가자들이 모임에 참가하였다.

모임에서는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드리는 맹세문이 낭독되었다.

맹세문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대회에서 하신 역사적인 결론은 위대한 수령, 위대한 당의 령도따라 주체적국방공업이 걸어온 자랑찬 도정을 긍지높이 총화하고 국가 핵무력원성의 대업을 실현한 민족사적 승리에 토대하여 우리의 국방공업을 21세기 최첨단의 자립적국방산업으로 비약시키기 위한 뚜렷한 방향과 구체적인 방도들을 확실히 밝혀낸 강령적인 지침이라고 지적하였다.

맹세문은 최악의 시련과 역경속에서 우리 조국이 그처럼 짧은 기간에 수소탄과 대륙간탄도로켓, 전략잠수함



만도만을 보유한 군사 최강국으로 급상승한 민족사적대기적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자주의 사상과 무비의 당력, 집술한 령도가 안아온 위대한 승리이라고 강조하였다.

대회참가자들은 시대와 인민앞에 지닌 숭고한 사명감을 온몸으로 새겨안고 최후 승리를 향한 계속전진, 계속혁신의 공적전진으로 용기백배, 기세충천하여 나아갈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사회주의강국의 불패가 국방공업전사들의 손에 쥐여졌다는것을 명심하고 대회의 기본정신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 총력기, 총배진하여 위대한 김정일시대를 국방공업발전과 국방력강화의 최고의 번영기, 최대의 전성기로 빛내일것이라고 지적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국방공업부분에서는 당의 병진로선

을 관철하여 군수생산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다그치며 우리 식의 위력한 최첨단무장장비들을 적극 개발하고 더욱 완성해나가야 합니다.》

맹세문은 대회참가자들이 국방공업전진의 전진속도이자 혁명의 전진속도이자 라는것을 순간도 잊지 않고 영광찬란한 주체혁명의 대로를 무적의 총대로 열어제끼는 기수가 되고 돌격대가 될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을 주체적국방공업전진의 진두에 대를 이어 높이 모시고 불멸의 명도업적을 견결히 옹호고수하며 강령적유론을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위대한 수령님들의 성스러운 국방공업명도사가 피땀처럼 천세만에 이어지게 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맹세문은 최악의 시련과 역경속에서 우리 조국이 그처럼 짧은 기간에 수소탄과 대륙간탄도로켓, 전략잠수함

일전단심 최고령도자동지를 위하여, 위대한 당, 김정일, 김정일조선의 최후승리를 위하여 전사의 각오를 가지고 역세게 투쟁해나가는 사상의 강자, 신념의 강자가 될것이라고 지적하였다.

국방공업부문의 모든 전구와 초소들을 수명보위의 붉은 보루로 철통같이 다지며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애국애민 의 최선명도를 방한벽이 되고 원점반격의 성세가 되어 지켜드리는 전사우리의 투사가 될것이라고 지적하였다.

맹세문은 국방공업부분에 당의 유일적명도제기를 더욱 철저히 세우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구상하시고 결심하신것은 죽으나사나 당중앙이 짜놓은 시간표와 로명대로 한치의 드림도 없이, 한결같은 양보도 없이 가장 성실하게, 가장 완벽하게 관철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당의 붉은 과학전사들인 국방과학자,

기술자들이 핵무력강화의 길에서 제일 화려한 조국과 인민을 위한 결사대정신으로 과감하게 돌진하여 국가핵무력을 질량적으로 더욱 강화해나갈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자기 땅에 발을 붙이고 눈을 세계를 굽어보며 집단적두뇌전, 실력전을 맹렬히 벌려 최고사령부의 붉은 화살표가 가닿는 작전전역 그 어디에서나 100% 우리의 넓과 슬기가 깃들고 우리 군대의 기질이 뿔뿔 살아 맥동치는 이 세상 가장 위력한 첨단무기들이 섬멸의 불벼락을 뚫게 할것이라고 지적하였다.

항일의 언길복판정신, 전회의 군사리정신으로 군수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여 전선의 인민군장병들에게 민족의 총포탄과 무장장비들을 방방 생산하여 보내줄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진전과학기술인쇄화의 요구에 맞게

적인 투쟁정신으로 부글부글 끓어번지고 산악같이 들고일어나게 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맹세문 낭독이 끝나자 《경애하는 김정일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목숨으로 사수하자!》, 《국가핵무력원성의 대업, 로켓드강국위업을 실현한 그 기세로 주체혁명의 병기창을 더욱 문흔히 다지자!》라는 구호의 함성이 정내를 진감하고 《영원히 한길을 가리파》의 노래주악이 힘있게 울려 퍼졌다.

전체 모인참가자들은 당중앙의 명도를 총성으로 받들어 주체혁명의 병기창을 질량적으로 문흔히 다지기 위한 투쟁에서 기수, 돌격대로서의 사명과 임무를 다해나감으로써 주체혁명의 새시대를 국방공업발전과 국방력강화의 최전성기로 빛내어갈 혁명적의지에 넘쳐있었다.

【조선중앙통신】



조선로동당 제5차 세포위원장 대회 가 소집된다

전당과 전체 인민이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기치를 높이 들고 주체혁명의 새시대 당건설과 사회주의강국건설에서 입대 전환을 일으키기 위한 힘찬 투쟁을 다그치고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조선로동당 제5차 세포위원장대회가 12월 하순 혁명의 수도 평양에서 열리게 된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는 전당에 당 중앙위원회의 유일적명도를 확고히 실현하는데서 당세포들이 차지하는 위치

와 역할을 중시하고 혁명발전의 새로운 높은 단계의 요구에 맞게 우리 당을 조직사상적으로 공고히 하며 현시기 당세포사업을 근본적으로 개선강화하는데서 나서는 문제들을 토의하고 지도하기 위하여 제5차 세포위원장대회를 소집하기로 하였다.

대회에서는 조선로동당 제4차 세포미사 대회가 제시한 전취적과업을 높이 받들고 지난 5년간 당세포들의 사업에서 이룩된 성과와 경험들을 분석총화하고 당세포사

업을 질적으로 개선하여 당 제7차대회 결정관철을 위한 투쟁에서 자기의 사명과 임무를 원만히 수행하도록 하기 위한 구체적인 과업과 방도들을 토의하게 된다.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커다란 관심속에 열리는 조선로동당 제5차 세포위원장대회는 우리 당을 영원히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의도로 강화발전시키고 주체혁명위업, 사회주의위업을 추동해나가는데서 중요한 역사적계기로 될것이다.

조선혁명과 세계자주화위업에 쌓아올린 불멸의 업적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시거 8쪽에 조응하여 베닌, 인도네시아, 이탈리아에서 11월 21일부터 12월 3일까지의 기간에 최고모임이 진행되었다.

모임에는 해당 나라의 각계 인사들과 군중이 참가하였다.

베닌 《김정일장군 만세》원목의 위원장이며 주체사상연구회 년전국위원회 위원장인 김정일장군회고 베닌전국위원회 위원장 레우 코호비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비범한 사상과 이론적예지를 지니시고 주체사상, 선군사상을 심화발전시키시였으며 하나의 로선

과 정책에도 광범한 인민대중의 지향과 요구가 반영되도록 하신데 대하여 찬양하였다.

인도네시아 라비프라 마호메 라 브라피마피사 사장 하론 씨누 파이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였다.

김정일각하의 시거 8쪽에 조응하여 우리는 조선혁명과 세계 자주화위업실현에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신 그이의 혁명생애를 감회깊이 회고하고있다.

김정일각하의 선군정치와 있었기에 조선은 핵보유국으로 솟아오를수 있었고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전환적국면이 마련되게 되었다. 김정일각하께서는 자주를

지향하는 진보적인인민들의 투쟁을 현명하게 이끄시였으며 정력적인 대외활동으로 세계 자주화위업을 힘있게 추동하시였다.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온 세계의 자주화를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바치신 그이께서는 인민의 마음속에 영생하시였다.

김정일동지회고 이탈리아위원회 위원장 미리암 벨레그리니 페리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핵무기의 아들로 탄생하시여 가렬한 항일대전과 조국해방전쟁의 불길속에서 성장하신데 대하여 언급하고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김정일각하는 이민주의의 숭고한 리념을 지니시고 인민사망의 정치를 펼치신 인민의 령도자이시다.

그이께서는 선군의 기치높이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수호하시고 조국통일위업실현에 거대한 공헌을 하시였다.

김정은각하의 현명한 령도속에 오는 조선은 막강한 핵억제력을 갖춘 불패의 사회주의국가로 더욱 강화발전되였다.

사회주의강국건설을 위해 투쟁하는 조선인민과의 연대성활동을 보다 활발히 벌려나갈것을 호소한다. 【조선중앙통신】

자주와 정의의 무진막강한 힘으로 백승떨치는 위대한 강국의 노래

제 8 차 군수공업대회 참가자들을 위한 축하공연 진행

조선로동당의 위대한 명진로선과 백승을 떨쳐가는 사회주의강국의 노래가 꽃잎이 울려 퍼지는 속에 제8차 군수공업대회 참가자들을 위한 축하공연이 13일 혁명의 수도 평양에서 진행되었다.

공연장소는 당의 현명한 명도밑에 국가력 무력완성의 전향고지를 점령한 승리의 궁지대놀이 이번 대회를 자위적국방공업의 위력을 바탕으로 강화하기 위한 지침을 열어나가는 역사적인 대회로 빛내인 참가자들의 혁명적열정으로 세차게 끓어오르고 있었다.

대륙간탄도로켓 《화성-15》형시험발사의 대성공을 인아은 성원들을 비롯한 제8차 군수공업대회 참가자들과 국방과학연구소, 군수공업부, 연변단위 과학자, 기술자, 로동자, 일꾼들이 공연을 관람하였다.

풍물국가합창단과 모란봉악단의 예술인들은 자력자강으로 세계를 놀래우며 사회주의 조선의 영웅신화를 창조한 격동의 시대들을 진감시킨 명진의 승전가를 울리며 창조형상하여 뜻깊은 공연무대를 펼쳐놓았다.

김일성, 김정일조선의 영광찬란한 역사와 더불어 천만심장을 뜨거운 애국총정의 붉은 피로 놀뛰지 한 노래 《빛나는 조국》을 첫 무대에 올린 출연자들은 경음악과 노래연극 《우민 승리자》, 남성합창 《붉은기술이 조선은 나간다》, 남성독창과 남성합창 《나가자 조선아 병천 앞으로》, 여성중창과 남성합창 《화성포의 노래》, 남성합창 《조선은 결심하면 한다》 등의 종목들로 위대한 강국의 위상을 적조놀이 구가하였다.

지원의 뜻이 어린 두자주의 권총으로부터

이 시작하여 국가력무력완성의 역사적대업을 성취한 천인미답의 장구한 행로우에 영원한 신념의 노래로 메아리치는 불후의 명작 《남산의 푸른 소나무》와 《우리는 민터에서 시작하였네》는 장내를 뜨겁게 울려주었다.

관람자들은 민리우에서 자위적국방공업의 비전을 역력같이 다시보고 자력자강의 험난한 초행길을 제시하며 최강의 국력을 마련해주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혁명력사, 민족자주사상과 백길물굴의 혁명정신, 계승혁명사상으로 력사의 온갖 도전을 과감히 거부하며 승승장구해 온 조선로동당의 영광스러운 역사를 긍지높이 돌이켜보았다.

절세위인들의 거룩하신 존함과 불멸의

업적, 우리 당과 인민의 만고의 투쟁사로 빛나는 주체적국방공업의 발전력사가 감명깊은 서사시적화투으로 펼쳐진 무대에 남성합창 《우리는 군수로동계급》, 남성독창 《고백》, 여성중창 《인생의 영광》이 울렸다.

국가력무력완성의 천만고미들을 완강하게 강행돌파하며 당중앙의 구상과 의도를 결사관철하는 길에서 참된 삶을 빛내여가는 국방과학자, 기술자들과 군수로동계급의 고결한 총정과 투철한 정신세계를 반영한 총무들은 관람자들을 세차게 격동시켰다.

백두의 신념과 의지가 사회주의조선의 자주적힘, 불가항력적위력을 천백배로 펼쳐주시고 병진의 기치놀이 주체혁명의 대로를 승리와 영광으로 수놓아가시는 경애하는 최고명도자 김정일동지의 정력

적인 명도와 애국헌신이 안아온 역사적인 《11월대사변》의 격정과 환희를 불러일으키며 관현악 《단숨에》가 장내를 들끓게 하였다.

자주와 정의의 무진막강한 힘으로 천만년 무궁민영할 주체조선의 광명한 미래를 굳건히 담보해나갈 국방공업전사들의 철의 신념과 의지가 분출된 공연은 남성합창 《혁명무력은 천수님 명도만 받든다》, 풍곡 《조선의 모습》으로 끝났다.

우리 당 명진로선의 대승리, 혁명의 최후 승리를 향하여 걸출내달리는 내 조국의 기상이 나뉘치고 자력경쟁의 위력으로 우리 식 사회주의의 필승불패성을 만천하에 떨쳐가는 인민의 불타는 총정이 천만심장의 함성으로 메아리친 공연은 관람자들의

대접찬을 받았다.

관람자들은 주체조선의 무궁강대한 힘이 시고 영원한 승리의 기치이신 경애하는 최고명도자동지의 두리에 더욱 굳게 봉착 당과 혁명을 위하여, 자위적국방공업의 강화발전을 위하여 힘차게 싸워나갈 열의에 넘쳐있었다.

제8차 군수공업대회 참가자들을 위한 축하공연은 위대한 당의 명도따라 사회주의 조선의 자주적존엄과 불패의 국력을 만방에 떨친 그 기세, 그 기백으로 오늘의 민족사적대승리를 보다 큰 승리로 이어나가며 이 땅우에 천하제일의 강대국을 반드시 일떠세울 천만군민의 혁명적기상을 힘있게 파시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온 나라에 굽이치는 그리움의 대하, 충정과 의리로 아름다운 우리 생활

12월에 꽃피는 이야기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위대한 장군님을 천세만세 영원히 높이 모시며 수령명정위업을 실현하기 위한 모든 사업을 순결한 망심과 도덕의리심을 가지고 진행하여야 합니다.》

선달의 추위가 강산을 얼

변함 없는 가을

머칠전 이른아침 대동강구역 청류1동에서 사는 김은순녀성은 동명양계1중학교에 다니는 두 아들을 앞세우고 집을 나섰다.

6년전처럼 해마다 12월이 오면 많은 배드마지와 수종이 좋은 나무를 심어 마련해놓고 김은순 태양양곡수목원을 찾는다. 그날이다. 그동안 그들이 김은순 태양양곡수목원에 심은 나무만 해도 수천그루, 배드마지는 수만 뿌리나 된다. 태양의 성지를 더 잘 꾸리는데 이바지할 한마음이고 기증한 관려도구는 또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김은순녀성의 할아버지는 해방후 우리 나라에 첫 태극이 일 때일 때 수많은 애국미를 바친 애국농민이다. 그해부터 대대로 나라를 위해 지성을 다하는것을 가풍으로 여기며 좋은 일을 많이 찾아온 그의 가정이다.

어머이장군님을 뜻하며 일고 온 나라가 울부짖던 6년전 12월 어느날 김은순녀성의 가정에서는 밭길로 찾아가서

를 바로하고 자기가 심던 영광의 그 자리에 다갔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아뢰었다.

(아버지장군님, 올해에도 저는 4년분 인민경제계획을 수행 하였습니다.)

벌써 6년새월이 흘렀다. 해마다 선달이면 그는 이곳에서 마음속으로 한해를 총화해온다. 피눈물의 12월을 보내고 그 다음해 12월에는 3년분 인민경제계획을 수행한 성과물, 그다음에는 세계제 편속 4년분 인민경제계획을 수행한 성과물, 어느해에는 선군시대봉로자, 풍운장적공의 영예를 지

기다리는 마음

우리 장군님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으로 낮이나 밤이나 생각이는 하나없이 잊지 못한다. 해마다 12월이면 이웃 총영원들은 선달에 남기신 어머이장군님의 발자취를 더듬어보곤 한다. 전지일말씀, 다름보감상설, 생선헌정...

머칠전에도 이들은 어머이장군님의 제취가 그대로 어려웠는 변미정분으로 오르는 동계단에 서서 6년전의 그날을 가슴뜨겁게 되새겨보았다.

잊지 못할 그날 쉼터를 다 돌아보고 총영원들과 기념사진을 찍고하시며 정분분으로 나오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날씨가 추운데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 동지를 천세만세 높이 받들며 모시고 수령님과 장군님께서 불러 주신 주체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빛나게 계승발전시켜나가는것을 우리 당과 인민의 혁명적의무이고 슬로건과 도덕의리이다.》

남이 갈수록 더욱 사무치는 그리움을 안고 위대한 수령님을 천세만세 높이 우리러도 세기 위한 사업에 더없이 애국애족한 충정을 바쳐가고있는 사람들속에는 평성시교원학교 교양강습소 지도교원 신원복동무와 평성공업대학 건설공학과도 사정영학파 2학년 학생들도 있다.

40년을 변함없이 신원복동무는 조선소년단에 입단한 날 아버지 함께 장수산언덕에 올랐다고 한다.

그날의 유년공생의 정령로병인 아버지가 들려주던 이야기는 오늘날 그의 가슴속에 소중히 간직되어있다.

《내가 저주로운 남평방에서 태어났더라면 아마 오늘날 같은 행복을 보았을지 모르겠다. 나는 우리 가정의 운명이신 위대한 수령님을 떠올리며 충정다해 말해보아야 한다.》

이렇게 시작된 장수산언덕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 동지를 천세만세 높이 받들며 모시고 수령님과 장군님께서 불러 주신 주체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빛나게 계승발전시켜나가는것을 우리 당과 인민의 혁명적의무이고 슬로건과 도덕의리이다.》

남이 갈수록 더욱 사무치는 그리움을 안고 위대한 수령님을 천세만세 높이 우리러도 세기 위한 사업에 더없이 애국애족한 충정을 바쳐가고있는 사람들속에는 평성시교원학교 교양강습소 지도교원 신원복동무와 평성공업대학 건설공학과도 사정영학파 2학년 학생들도 있다.

40년을 변함없이 신원복동무는 조선소년단에 입단한 날 아버지 함께 장수산언덕에 올랐다고 한다.

그날의 유년공생의 정령로병인 아버지가 들려주던 이야기는 오늘날 그의 가슴속에 소중히 간직되어있다.

《내가 저주로운 남평방에서 태어났더라면 아마 오늘날 같은 행복을 보았을지 모르겠다. 나는 우리 가정의 운명이신 위대한 수령님을 떠올리며 충정다해 말해보아야 한다.》

이렇게 시작된 장수산언덕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 동지를 천세만세 높이 받들며 모시고 수령님과 장군님께서 불러 주신 주체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빛나게 계승발전시켜나가는것을 우리 당과 인민의 혁명적의무이고 슬로건과 도덕의리이다.》

남이 갈수록 더욱 사무치는 그리움을 안고 위대한 수령님을 천세만세 높이 우리러도 세기 위한 사업에 더없이 애국애족한 충정을 바쳐가고있는 사람들속에는 평성시교원학교 교양강습소 지도교원 신원복동무와 평성공업대학 건설공학과도 사정영학파 2학년 학생들도 있다.

40년을 변함없이 신원복동무는 조선소년단에 입단한 날 아버지 함께 장수산언덕에 올랐다고 한다.

그날의 유년공생의 정령로병인 아버지가 들려주던 이야기는 오늘날 그의 가슴속에 소중히 간직되어있다.

《내가 저주로운 남평방에서 태어났더라면 아마 오늘날 같은 행복을 보았을지 모르겠다. 나는 우리 가정의 운명이신 위대한 수령님을 떠올리며 충정다해 말해보아야 한다.》

이렇게 시작된 장수산언덕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 동지를 천세만세 높이 받들며 모시고 수령님과 장군님께서 불러 주신 주체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빛나게 계승발전시켜나가는것을 우리 당과 인민의 혁명적의무이고 슬로건과 도덕의리이다.》

남이 갈수록 더욱 사무치는 그리움을 안고 위대한 수령님을 천세만세 높이 우리러도 세기 위한 사업에 더없이 애국애족한 충정을 바쳐가고있는 사람들속에는 평성시교원학교 교양강습소 지도교원 신원복동무와 평성공업대학 건설공학과도 사정영학파 2학년 학생들도 있다.

40년을 변함없이 신원복동무는 조선소년단에 입단한 날 아버지 함께 장수산언덕에 올랐다고 한다.

그날의 유년공생의 정령로병인 아버지가 들려주던 이야기는 오늘날 그의 가슴속에 소중히 간직되어있다.

《내가 저주로운 남평방에서 태어났더라면 아마 오늘날 같은 행복을 보았을지 모르겠다. 나는 우리 가정의 운명이신 위대한 수령님을 떠올리며 충정다해 말해보아야 한다.》

이렇게 시작된 장수산언덕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 동지를 천세만세 높이 받들며 모시고 수령님과 장군님께서 불러 주신 주체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빛나게 계승발전시켜나가는것을 우리 당과 인민의 혁명적의무이고 슬로건과 도덕의리이다.》

남이 갈수록 더욱 사무치는 그리움을 안고 위대한 수령님을 천세만세 높이 우리러도 세기 위한 사업에 더없이 애국애족한 충정을 바쳐가고있는 사람들속에는 평성시교원학교 교양강습소 지도교원 신원복동무와 평성공업대학 건설공학과도 사정영학파 2학년 학생들도 있다.

40년을 변함없이 신원복동무는 조선소년단에 입단한 날 아버지 함께 장수산언덕에 올랐다고 한다.

그날의 유년공생의 정령로병인 아버지가 들려주던 이야기는 오늘날 그의 가슴속에 소중히 간직되어있다.

《내가 저주로운 남평방에서 태어났더라면 아마 오늘날 같은 행복을 보았을지 모르겠다. 나는 우리 가정의 운명이신 위대한 수령님을 떠올리며 충정다해 말해보아야 한다.》

이렇게 시작된 장수산언덕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 동지를 천세만세 높이 받들며 모시고 수령님과 장군님께서 불러 주신 주체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빛나게 계승발전시켜나가는것을 우리 당과 인민의 혁명적의무이고 슬로건과 도덕의리이다.》

남이 갈수록 더욱 사무치는 그리움을 안고 위대한 수령님을 천세만세 높이 우리러도 세기 위한 사업에 더없이 애국애족한 충정을 바쳐가고있는 사람들속에는 평성시교원학교 교양강습소 지도교원 신원복동무와 평성공업대학 건설공학과도 사정영학파 2학년 학생들도 있다.

40년을 변함없이 신원복동무는 조선소년단에 입단한 날 아버지 함께 장수산언덕에 올랐다고 한다.

그날의 유년공생의 정령로병인 아버지가 들려주던 이야기는 오늘날 그의 가슴속에 소중히 간직되어있다.

《내가 저주로운 남평방에서 태어났더라면 아마 오늘날 같은 행복을 보았을지 모르겠다. 나는 우리 가정의 운명이신 위대한 수령님을 떠올리며 충정다해 말해보아야 한다.》

이렇게 시작된 장수산언덕에

장군님께 아뢰고 싶어

호 향했다. 바로 그곳이 우리 장군님을 모시고 세 세대 현신자의 영예를 안고 기념사진을 찍은 자리였다. 그는 못배무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 동지를 천세만세 높이 받들며 모시고 수령님과 장군님께서 불러 주신 주체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빛나게 계승발전시켜나가는것을 우리 당과 인민의 혁명적의무이고 슬로건과 도덕의리이다.》

남이 갈수록 더욱 사무치는 그리움을 안고 위대한 수령님을 천세만세 높이 우리러도 세기 위한 사업에 더없이 애국애족한 충정을 바쳐가고있는 사람들속에는 평성시교원학교 교양강습소 지도교원 신원복동무와 평성공업대학 건설공학과도 사정영학파 2학년 학생들도 있다.

40년을 변함없이 신원복동무는 조선소년단에 입단한 날 아버지 함께 장수산언덕에 올랐다고 한다.

그날의 유년공생의 정령로병인 아버지가 들려주던 이야기는 오늘날 그의 가슴속에 소중히 간직되어있다.

《내가 저주로운 남평방에서 태어났더라면 아마 오늘날 같은 행복을 보았을지 모르겠다. 나는 우리 가정의 운명이신 위대한 수령님을 떠올리며 충정다해 말해보아야 한다.》

이렇게 시작된 장수산언덕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 동지를 천세만세 높이 받들며 모시고 수령님과 장군님께서 불러 주신 주체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빛나게 계승발전시켜나가는것을 우리 당과 인민의 혁명적의무이고 슬로건과 도덕의리이다.》

남이 갈수록 더욱 사무치는 그리움을 안고 위대한 수령님을 천세만세 높이 우리러도 세기 위한 사업에 더없이 애국애족한 충정을 바쳐가고있는 사람들속에는 평성시교원학교 교양강습소 지도교원 신원복동무와 평성공업대학 건설공학과도 사정영학파 2학년 학생들도 있다.

40년을 변함없이 신원복동무는 조선소년단에 입단한 날 아버지 함께 장수산언덕에 올랐다고 한다.

그날의 유년공생의 정령로병인 아버지가 들려주던 이야기는 오늘날 그의 가슴속에 소중히 간직되어있다.

《내가 저주로운 남평방에서 태어났더라면 아마 오늘날 같은 행복을 보았을지 모르겠다. 나는 우리 가정의 운명이신 위대한 수령님을 떠올리며 충정다해 말해보아야 한다.》

이렇게 시작된 장수산언덕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 동지를 천세만세 높이 받들며 모시고 수령님과 장군님께서 불러 주신 주체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빛나게 계승발전시켜나가는것을 우리 당과 인민의 혁명적의무이고 슬로건과 도덕의리이다.》

남이 갈수록 더욱 사무치는 그리움을 안고 위대한 수령님을 천세만세 높이 우리러도 세기 위한 사업에 더없이 애국애족한 충정을 바쳐가고있는 사람들속에는 평성시교원학교 교양강습소 지도교원 신원복동무와 평성공업대학 건설공학과도 사정영학파 2학년 학생들도 있다.

40년을 변함없이 신원복동무는 조선소년단에 입단한 날 아버지 함께 장수산언덕에 올랐다고 한다.

그날의 유년공생의 정령로병인 아버지가 들려주던 이야기는 오늘날 그의 가슴속에 소중히 간직되어있다.

《내가 저주로운 남평방에서 태어났더라면 아마 오늘날 같은 행복을 보았을지 모르겠다. 나는 우리 가정의 운명이신 위대한 수령님을 떠올리며 충정다해 말해보아야 한다.》

이렇게 시작된 장수산언덕에

997번째 꽃바구니

동대원구역 위대한 병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희망의 전세대가 후대를에게 물려주어야 할 가장 값있는 유산은 정신도덕적유산입니다.》

얼마전 동대원구역 출신2동 18인민반에서 사는 김정애녀성의 집을 찾았을 때 우리의 눈앞에 먼저 안겨드린것은 집안의 한 벽면에 모신 기념사진들이었다.

《어머이 영방의 대외들이 참가하여 위대한 수령님들을 모시고 찍은 기념사진들입니다.》

우리에게 아들 정성일동무가 하는 말이였다. 그러면서 그는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김정애녀성은 대동강구역제과대소에서 당세포커서(당시)로 일하기 시작한 때부터 내로 보장을 받은지 10여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40년간 비가 오나 내지 오나 매일 같이 만수대인덕으로 오르고있다.

인민의 봉사사라는 높은 자락을 안고 상업생활을 행하는 속에서 인민군대원호와 사회주의건설장들에 대한 지원도 힘있게 벌려왔다.

여러해가 지나서야 그의 소행을 알게 된 총영원들이 그 집을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 동지를 천세만세 높이 받들며 모시고 수령님과 장군님께서 불러 주신 주체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빛나게 계승발전시켜나가는것을 우리 당과 인민의 혁명적의무이고 슬로건과 도덕의리이다.》

남이 갈수록 더욱 사무치는 그리움을 안고 위대한 수령님을 천세만세 높이 우리러도 세기 위한 사업에 더없이 애국애족한 충정을 바쳐가고있는 사람들속에는 평성시교원학교 교양강습소 지도교원 신원복동무와 평성공업대학 건설공학과도 사정영학파 2학년 학생들도 있다.

40년을 변함없이 신원복동무는 조선소년단에 입단한 날 아버지 함께 장수산언덕에 올랐다고 한다.

그날의 유년공생의 정령로병인 아버지가 들려주던 이야기는 오늘날 그의 가슴속에 소중히 간직되어있다.

《내가 저주로운 남평방에서 태어났더라면 아마 오늘날 같은 행복을 보았을지 모르겠다. 나는 우리 가정의 운명이신 위대한 수령님을 떠올리며 충정다해 말해보아야 한다.》

이렇게 시작된 장수산언덕에

따르며 그리는 마음 초석이 되어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 동지를 천세만세 높이 받들며 모시고 수령님과 장군님께서 불러 주신 주체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빛나게 계승발전시켜나가는것을 우리 당과 인민의 혁명적의무이고 슬로건과 도덕의리이다.》

남이 갈수록 더욱 사무치는 그리움을 안고 위대한 수령님을 천세만세 높이 우리러도 세기 위한 사업에 더없이 애국애족한 충정을 바쳐가고있는 사람들속에는 평성시교원학교 교양강습소 지도교원 신원복동무와 평성공업대학 건설공학과도 사정영학파 2학년 학생들도 있다.

40년을 변함없이 신원복동무는 조선소년단에 입단한 날 아버지 함께 장수산언덕에 올랐다고 한다.

그날의 유년공생의 정령로병인 아버지가 들려주던 이야기는 오늘날 그의 가슴속에 소중히 간직되어있다.

《내가 저주로운 남평방에서 태어났더라면 아마 오늘날 같은 행복을 보았을지 모르겠다. 나는 우리 가정의 운명이신 위대한 수령님을 떠올리며 충정다해 말해보아야 한다.》

이렇게 시작된 장수산언덕에

새겨주어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 동지를 천세만세 높이 받들며 모시고 수령님과 장군님께서 불러 주신 주체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빛나게 계승발전시켜나가는것을 우리 당과 인민의 혁명적의무이고 슬로건과 도덕의리이다.》

남이 갈수록 더욱 사무치는 그리움을 안고 위대한 수령님을 천세만세 높이 우리러도 세기 위한 사업에 더없이 애국애족한 충정을 바쳐가고있는 사람들속에는 평성시교원학교 교양강습소 지도교원 신원복동무와 평성공업대학 건설공학과도 사정영학파 2학년 학생들도 있다.

40년을 변함없이 신원복동무는 조선소년단에 입단한 날 아버지 함께 장수산언덕에 올랐다고 한다.

그날의 유년공생의 정령로병인 아버지가 들려주던 이야기는 오늘날 그의 가슴속에 소중히 간직되어있다.

《내가 저주로운 남평방에서 태어났더라면 아마 오늘날 같은 행복을 보았을지 모르겠다. 나는 우리 가정의 운명이신 위대한 수령님을 떠올리며 충정다해 말해보아야 한다.》

이렇게 시작된 장수산언덕에

부강조국건설에 이바지할 불라는 일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누구나 보석과 같은 애국의 마음을 간직하고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유익한 일을 스스로 찾아야 합니다.》

각지 일꾼들과 근로자들, 주민들과 청소년학생들이 부강조국건설에 이바지할 불라는 일념을 안고 새해의 트랙터와 5t 급화물자동차생산에 애국의 한마음을 바치였다.

기계공정 책임일꾼들은 새해의 트랙터와 5t 급화물자동차생산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그시그시 알아보고 제때에 필요한 대책을 세워주었으며 생산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 지난 8월에는 성일군들과 총영원들을 불러들여 부강조국건설에 이바지할 불라는 일념을 강조하며 그들이 근로자들과 함께 일도 하면서 정치사업을 벌리도록 함으로써 공장로동계급을 위문장조로 적극 고무해주었다.

또한 성의 일꾼들은 여러차례 승려차원현황조사에도 나가 각기 많은 승려차원들을 근로자들에게 넘겨주고 지역자강의 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당에서 정해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 동지를 천세만세 높이 받들며 모시고 수령님과 장군님께서 불러 주신 주체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빛나게 계승발전시켜나가는것을 우리 당과 인민의 혁명적의무이고 슬로건과 도덕의리이다.》

남이 갈수록 더욱 사무치는 그리움을 안고 위대한 수령님을 천세만세 높이 우리러도 세기 위한 사업에 더없이 애국애족한 충정을 바쳐가고있는 사람들속에는 평성시교원학교 교양강습소 지도교원 신원복동무와 평성공업대학 건설공학과도 사정영학파 2학년 학생들도 있다.

40년을 변함없이 신원복동무는 조선소년단에 입단한 날 아버지 함께 장수산언덕에 올랐다고 한다.

그날의 유년공생의 정령로병인 아버지가 들려주던 이야기는 오늘날 그의 가슴속에 소중히 간직되어있다.

《내가 저주로운 남평방에서 태어났더라면 아마 오늘날 같은 행복을 보았을지 모르겠다. 나는 우리 가정의 운명이신 위대한 수령님을 떠올리며 충정다해 말해보아야 한다.》

이렇게 시작된 장수산언덕에

기술혁신사업을 대중자신의 사업으로 전환시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 동지를 천세만세 높이 받들며 모시고 수령님과 장군님께서 불러 주신 주체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빛나게 계승발전시켜나가는것을 우리 당과 인민의 혁명적의무이고 슬로건과 도덕의리이다.》

남이 갈수록 더욱 사무치는 그리움을 안고 위대한 수령님을 천세만세 높이 우리러도 세기 위한 사업에 더없이 애국애족한 충정을 바쳐가고있는 사람들속에는 평성시교원학교 교양강습소 지도교원 신원복동무와 평성공업대학 건설공학과도 사정영학파 2학년 학생들도 있다.

40년을 변함없이 신원복동무는 조선소년단에 입단한 날 아버지 함께 장수산언덕에 올랐다고 한다.

그날의 유년공생의 정령로병인 아버지가 들려주던 이야기는 오늘날 그의 가슴속에 소중히 간직되어있다.

《내가 저주로운 남평방에서 태어났더라면 아마 오늘날 같은 행복을 보았을지 모르겠다. 나는 우리 가정의 운명이신 위대한 수령님을 떠올리며 충정다해 말해보아야 한다.》

이렇게 시작된 장수산언덕에

일꾼들의 사업에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 동지를 천세만세 높이 받들며 모시고 수령님과 장군님께서 불러 주신 주체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빛나게 계승발전시켜나가는것을 우리 당과 인민의 혁명적의무이고 슬로건과 도덕의리이다.》

남이 갈수록 더욱 사무치는 그리움을 안고 위대한 수령님을 천세만세 높이 우리러도 세기 위한 사업에 더없이 애국애족한 충정을 바쳐가고있는 사람들속에는 평성시교원학교 교양강습소 지도교원 신원복동무와 평성공업대학 건설공학과도 사정영학파 2학년 학생들도 있다.

40년을 변함없이 신원복동무는 조선소년단에 입단한 날 아버지 함께 장수산언덕에 올랐다고 한다.

그날의 유년공생의 정령로병인 아버지가 들려주던 이야기는 오늘날 그의 가슴속에 소중히 간직되어있다.

《내가 저주로운 남평방에서 태어났더라면 아마 오늘날 같은 행복을 보았을지 모르겠다. 나는 우리 가정의 운명이신 위대한 수령님을 떠올리며 충정다해 말해보아야 한다.》

이렇게 시작된 장수산언덕에



위대한 장군님의 유골을 끝까지 관현해나갈 불라는 결의에 넘쳐있다. - 국가과학원 생물공학분원 식물유전자공학연구소에서 - 본사기자 김 종 훈 특약



사무치는 그리움 못 글마다에 달아간다. - 만경대구역 장춘1동 병영남동무의 가정에서 - 김광림 특약

정의와 평화를 수호하신 위대한 령장

영웅적조선인민에게 열렬한 축하를 보낸다

여러 나라 단체들과 인사가 강조

《김정일동지는 한 나라, 한 민족의 운명만을 지키지 않으셨다. 정의의 위업과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셨다.》, 《김정일동지의 선군정치가 없었다면 지구상에서 진정한 정의는 이미 오래전에 사라졌을 것이다.》,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수호하신 김정일동지는 정말 위대한 위인이시다.》

이것은 세계의 권력으로서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시고 인류자주위업을 승려하고 이끄신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칭송하며 세계 진보적인류가 미친 심장의 목소리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군사혁명군을 창설하시고 우리 군대를 무적의 혁명강군으로 키우셨으며 우리 조국을 그 어떤 침략세력도 버림할수 없는 자위적군사강국으로 일떠세우셨다.》

20세기말 세계의 평화와 안전은 엄청난 위협을 받았다. 사회주의를 건설한 일부 나라들이 붕괴되고 세계정치지도도와 혁명관계에서는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다.

미국은 국제무대에서 강권과 전횡, 침략과 전쟁을 앞세워 주권국가들의 자주권을 마구 유린하였다. 추종세력들을 동원하여 자국의 기치, 사회주의기치를 변질하여 높이 들고나가는 우리 공화국을 공격의 화살을 집중하였다. 정치, 경제, 문화, 외교의 모든 분야에 걸쳐 압력을 가하면서 힘으로 우리 공화국을 압살하려고 침략전쟁행동을 절묘하게 데모하였다.

미제의 끊임없는 새 전쟁도발행동으로 하여 조선반도에는 핵전쟁의 검은구름이 짙게 드리웠다.

은 세계가 불안과 우려를 가지고

조선을 지켜보았다.

바로 이러한 때 위대한 장군님께서 정의는 오직 강력한 힘으로만 지킬수 있다는 투철한 신념과 의지를 안시고 불면불휴의 정력적인 선군명도의 길에 나서셨다. 결코 그 길은 한 나라, 한 민족의 운명만을 수호하기 위한 길이었다. 인류의 자주위업, 세계의 평화를 지키는 길이었다. 바로 이 때에 위대한 장군님께서 정의는 오직 강력한 힘으로만 지킬수 있다는 투철한 신념과 의지를 안시고 불면불휴의 정력적인 선군명도의 길에 나서셨다. 결코 그 길은 한 나라, 한 민족의 운명만을 수호하기 위한 길이었다. 인류의 자주위업, 세계의 평화를 지키는 길이었다.

정당한 정치는 오직 강력한 힘에 의하여 수호되며 적들이 칼을 빼들면 전쟁을 휘두르고 총을 불어대면 대포를 내대는 초강대국으로 제국주의자들의 침략한 압력과 도전을 단호히 제압분쇄하여야 한다는 것이 우리 장군님의 드림없는 의지였다.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의 탁월한 선군혁명명도에 의하여 우리 인민군대는 그 어떤 침략자들도 단숨에 짓밟아버릴수 있는 무적의 혁명강군으로 지라났고 우리의 국방공능은 강위대한 자위적국방공능으로 더욱 강화발전되었다.

우리 장군님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마련하여주신 강력한 군사적힘에 의하여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가중되는 군사적압력과 침략행동을 걸음마다 여지없이 짓부셔하셨다.

1996년 4월 정전협정을 만류하며 위대한 군사분계선비무선지대에 중무기들을 끌어들이며 정세를 극도로 격화시키고있던 미국과 남조선피괴물의 무분별한 군사적행동을 단호한 물리적행동으로 평정하였다.

1998년말 미국이 우리 공화국에 대한 선제공격계획인 《작전계획 5027》을 구체적으로 공개하며

당장 무슨 권위이라도 칠것처럼 의세를 부릴 때 우리를 건드리는자들은 이 행성의 어디에 있든 우리의 타격권에서 절대 벗어나지 못할것이라는 조선인민 총참모부 대원인명도의 길에 나서셨다. 결코 그 길은 한 나라, 한 민족의 운명만을 수호하기 위한 길이었다. 인류의 자주위업, 세계의 평화를 지키는 길이었다.

우리의 초강대국의 존재가 미국을 거가 질러 어찌할바를 몰라 허비하였다.

1999년 미국은 이전 유고슬라비아를 무력으로 침공하고 유권국가에 대서판에 폭격을 가하면서 우리 나라에는 전 국방장관 폐지를 대통령특사로 보내어왔다.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혁명명도가 인민을 빛나는 길이었다.

미국은 우리와의 대결에서 캄페를 당하였다. 미국은 여기에서 용감한 교훈을 찾아야 하였다. 하지만 미국은 그후에도 우리 공화국을 압살하려는 기도를 조금도 버리지 않았으며 군사적방법으로 그것을 꾀어 실현해보려고 발악하였다. 뛰어난 조선반도와 그 주변지역에 방대한 핵무기력을 불어넣고 핵전쟁연습행동을 벌리면서 우리에게 대한 핵위협을 더욱더 계속 높였다. 지어 우리 공화국을 핵선제공격대상명단에 올려놓고 힘의 사용도 배제하지 않겠다고 공공연히 천명하였다.

우리에겐 핵전쟁을 두려워하는 미국의 기도가 명백히 드러난 이상 그것을 막기 위한 대책이 절실했었다.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우리 공화국이 미국의 핵에 쫓겨나서는 안되며 강력한 군사적힘으로 미국의 침략을 막아내야 한다는 확고한 신념을 수호하기 위해서는 핵무기는 물론 그보다 더한것도 가진수 있다는 우리의 정정당당한 믿음을 표명 하도록 하시었다.

2005년 2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은 성명을 발표하여 우리 나라가 미국의 로보트되는 핵

위협으로부터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안전을 수호하기 위하여 합법적으로, 정정당당하게 핵억제력을 가지게 되었다는것을 공식 선언하였다. 우리는 지하핵실험을 성공적으로 단행하여 그것이 민방이 아니라는것을 보여주었다.

동북아시아지역의 핵불균형상태는 골장나게 되었다. 공화국의 핵보유가 가지는 억제효과로 하여 조선반도에서의 전쟁발발위험은 현저히 줄어들게 되었다. 동북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이 보장되었다.

우리 공화국은 평화수호의 강력한 의무로 돌아왔다. 이것은 오직 세계의 침술명정자인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께서만이 안아오실수 있는 력사의 기적이다.

하기에 세계 진보적인민들은 오늘도 우리 장군님의 탁월한 선군혁명명도가 있었기에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에서 전쟁이 억제되고 세계의 평화와 안전이 보장되었다고 하면서 위대한 장군님이사야말로 위인중의 위인이시라고 격찬의 목소리를 높이 높이고있다.

동북아시아와 세계평화보장을 위해 투철한 공헌을 하신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업적은 오늘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에 의하여 더욱 빛나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위대한 장군님의 뜻을 받들어 우리 조국을 그 누구도 감히 넘볼수 없는 세계적인 군사강국으로 이 행성의 중심에 우뚝 올려 세우시어주시고 강력한 군사적힘으로 세계의 평화와 안전, 국제적정의를 굳건히 수호하고계신다.

본세대의 위인인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계시어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업적은 영원히 빛을 뿌릴것이다.

본사기자 김 승 결

우리의 대륙간탄도로켓 《화성-15》형시험발사성공을 축하하여 민주공화국, 스위스당세력이 11월 29일과 30일 공동성명문을 발표하였다. 민주공화국-조선선진 및 현대성업회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조선의 핵무력강화는 수십년간 지속되어온 미국의 핵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다. 조선이 진행하는 핵실험과 로켓 시험발사들은 주권국가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자위적행위의 행사이다.

이런 시험발사를 통하여 조선은 세계적인 군사강국으로서의 위용을 다시 한번 떨치었다. 우리는 반제국주의의 길로 힘차게 나아가는 조선인민과 언제나 함께 있을것이다.

우리의 대륙간탄도로켓 《화성-15》형시험발사성공을 축하하여 민주공화국, 스위스당세력이 11월 30일과 12월 1일 성명문을 발표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선진 및 분회로써 로켓이행회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조선이 미국본토연결을 다져갈수 있도록 다짐하고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테러지원국》제정행동과 야만적인 경제와 경제봉쇄소동을 당당히 저지하며 정정당당하게 평화협정을 맺을것을 약속하고있다.

조선은 인민의 참다운 자유와 권리가 철저히 보장되는 나라이다. 미국은 이 나라의 《인권문제》를 결코 조작한 부당한 견해를 철회하여야 한다.

우리의 대륙간탄도로켓 《화성-15》형시험발사성공을 축하하여 민주공화국, 스위스당세력이 11월 29일과 30일 공동성명문을 발표하였다. 민주공화국-조선선진 및 현대성업회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조선의 핵무력강화는 수십년간 지속되어온 미국의 핵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다. 조선이 진행하는 핵실험과 로켓 시험발사들은 주권국가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자위적행위의 행사이다.

이런 시험발사를 통하여 조선은 세계적인 군사강국으로서의 위용을 다시 한번 떨치었다. 우리는 반제국주의의 길로 힘차게 나아가는 조선인민과 언제나 함께 있을것이다.

우리의 대륙간탄도로켓 《화성-15》형시험발사성공을 축하하여 민주공화국, 스위스당세력이 11월 30일과 12월 1일 성명문을 발표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선진 및 분회로써 로켓이행회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조선이 미국본토연결을 다져갈수 있도록 다짐하고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테러지원국》제정행동과 야만적인 경제와 경제봉쇄소동을 당당히 저지하며 정정당당하게 평화협정을 맺을것을 약속하고있다.

조선은 인민의 참다운 자유와 권리가 철저히 보장되는 나라이다. 미국은 이 나라의 《인권문제》를 결코 조작한 부당한 견해를 철회하여야 한다.

《북침핵전쟁연습 즉각 중단!》, 《싸드 가지고 미군 떠나라!》

서울과 경기도의 미군기지 주변 곳곳에 100민장의 배라 살포

남조선인민신문 《민족일보》에 의하면 민주진주당 반도립소, 반미, 반침략위원회가 6일 미제와 남조선피괴로전환들의 대규모적인 북침연습중지를 요구하며 미제 침략군의 철수를 요구하는

내용의 배라 100민장을 서울과 경기도의 곳곳에 뿌리었다.

배라의 앞면에는 핵배섯기를 배경으로 나치식인사물 하는 드립프의 상형이, 뒤면에는 《북침핵전쟁연습 즉각 중단!》, 《싸드 가지고 미군 떠나라!》의 글이 인쇄되어 있었다.

단체는 서울과 경기도의 미제침략군기지주변과 중요대상물을 기본으로 하여 지하철도역, 거리, 도로 등 주요 장소에 배라를 살포하였다.

단체는 방대한 항공무력이 동원된 북침핵전쟁연습의 심각성을 널리 알리고 규탄하기 위해 이러한 행동을 벌였다고 주장하였다.

리명박을 당장 구속하라

서울에서 역도구속심판을 요구하는 시위행진 진행

남조선에서의 보도에 의하면 피괴보수정권의 적폐를 청산하기 위한 투쟁이 고조되고 있는 속에 9일 서울에서 리명박역도 구속심판행동을 요구하는 각계층의 시위행진이 진행되었다.

이날 《MB잡자 투쟁대》를 비롯한 각계 단체들과 시민들은 지하철역과 강남역에서부터 리명박역도의 집무근인 한동대까지 시위행진을 단행하였다.

요구하는 구호를 불렀다. 수많은 서울시민들이 시위참가자들의 투쟁을 고무격려하였다.

도 초법집회를 열고 역도의 구속심판을 강력히 요구할것이라고 밝혔다.

기쁨이며 적폐의 원수이라고 단죄하였다.

《초법로 취잡자 MB구속》, 《MB구속! 적폐청산!》, 《반권위 무정선거 정권조사!》, 《리명박구속을 위한 12월 매주 토요일 총파업!》 등의 글이 적혀진 선전물들과 초콜릿은 참가자들은 《리명박을 구속하라!》고 외치며 시위행진을 시작하였다.

그들은 리명박역도가 죄수복을 입고 죄수상에 묶여 끌려가는 모습을 형상하며 역도의 구속을

요구하는 구호를 불렀다. 수많은 서울시민들이 시위참가자들의 투쟁을 고무격려하였다.

도 초법집회를 열고 역도의 구속심판을 강력히 요구할것이라고 밝혔다.



스웨리에 대사관 연회 마련

스웨리의 민주혁명인 루지아의 날에 즈음하여 13일 주 스웨리에왕국대사관이 연회를 마련하였다.

연회에는 외무성 부장 한성철 동지, 대외문화협력위원회 부위원장 서호원동지, 관계부문 일꾼들과 주조 여러 나라 외교 및 국

제기대대표부 성원들이 초대되었다. 요나스 미카엘 뎀 스웨리에왕국 특명전권대사와 대사관성원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연마련 전 계약관 기관정보관 마이클 폴렌이 로제아의 미군대통령선거게임의혹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였는데 특검수사소에 자기와 실지 로제아와 관계하였다고 그것은 단독검문에 따르면이내러 고위관계자의 지시를 받고 그렇게 하였다고 고백한것이다.

일본 반동들의 집요한 무장장비증강책동

일본반동들이 침략전쟁에 베풀어 장거리순항미사일들을 예비하려고 노력하고있다.

8일 이 나라 언론들이 전한데 의하면 일본정부가 순항미사일 도입에 필요한 자금을 2018년도 예산안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하였다.

《적기지공격능력의 보유에로 이어진다고 하면서 이배정전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러한 가운데 8일 《도쿄신문》은 방위성이 항공《자위대》의 전투기들에 탑재할 3종류의 장거리순항미사일의 도입을 계획하고있다.

사실은 일본반동들이 조선반도정세악화를 구실로 제국의 개입을 실현해보려고 얼마나 잔혹하게 놀아내고있는가 하는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후에 로제아의 미국대통령선거게임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 미국정보기관들이 이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였지만 제재문화 문제는 존의한바 없다고 강변치 못 버티고있었다.

수단과 알제리에서 반미집회와 시위

수단의 하르툼에서 8일 푸드 스카프의 수도로 인정된 미국을 규탄하는 대중적인 집회가 진행되었다.

이집트알렉산드리아에 모인 수백명의 시위참가자들은 미국과 이스라엘을 비난하는 글들이 적혀진

프랑스카드를 들고 미국의 그릇된 처사를 단죄하였으며 정부가 이스라엘과의 모든 관계를 중지할것을 요구하고있다.

이날 알제리의 전국각지에서 수도 알제리의 각계층 군중이 트럼프의 불법무도한 처사를 반대

하여 시위행진을 벌였다. 인리대 트럼프지주들은 분노한 국외의원들이 수도 알제리에서 있는 미국대사관앞에서 《트럼프는 팔레스티나의 수도》라고 쓰는 구호문들과 프랑스카드를 들고 항의시위를 벌이는 사 진들이 나왔다【조선중앙통신】

후에 로제아의 미국대통령선거게임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 미국정보기관들이 이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였지만 제재문화 문제는 존의한바 없다고 강변치 못 버티고있었다.

재중조선인총련합회 미국과 남조선괴뢰들의 북침소동을 단죄

재중조선인총련합회가 4일 《우리 공화국을 겨냥한 위협적인 반한협공준편을 당당 중지해야 한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하였다.

미국과 남조선괴뢰들이 우리 공화국을 겨냥한 사상 최대규모의 반한협공준편을 밀려놓는데 대해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일군

들의 대조선적대시정책에 있다고 주장하였다.

미국이 주요침략자살들을 조선반도에 대항투입하여 전개되는 규모에서 실전을 가능한 반한협공준편을 밀려놓은것은 현으로 우리 공화국을 다스려보겠다는 의심을 다시한번 세계면전에 드러내놓은것이라고 성명은 단죄하였다.

성명은 조선반도문제의 근원을 반제국이상 지쳐되고있는 미국의 평화와 안전을 운운하면서도 경제제재와 군사적압력을 위해서라면 국제법도 안중에 두지 않는 불명백국가가 바로 미국이며 조선반도에 위협적인 반한협공준편을 밀려놓은것은 현으로 우리 공화국을 다스려보겠다는 의심을 다시한번 세계면전에 드러내놓은것이라고 성명은 단죄하였다.

성명은 조선반도문제의 근원을 반제국이상 지쳐되고있는 미국의 평화와 안전을 운운하면서도 경제제재와 군사적압력을 위해서라면 국제법도 안중에 두지 않는 불명백국가가 바로 미국이며 조선반도에 위협적인 반한협공준편을 밀려놓은것은 현으로 우리 공화국을 다스려보겠다는 의심을 다시한번 세계면전에 드러내놓은것이라고 성명은 단죄하였다.

반공화국공조강화를 노린 《신북방정책》

최근 남조선피괴당국이 유라시아나타들과의 관계다각화를 기본으로 하는 《신북방정책》이라는것을 내놓고 분주함을 피우며 움직이고있다.

《신북방정책》을 《국제정세변화추진위원회》의 주진으로 추진하여 《북방정책》의 확대강화를 노린 대결정책의 변종이다.

최근 남조선피괴당국이 유라시아나타들과의 관계다각화를 기본으로 하는 《신북방정책》이라는것을 내놓고 분주함을 피우며 움직이고있다.

《신북방정책》을 《국제정세변화추진위원회》의 주진으로 추진하여 《북방정책》의 확대강화를 노린 대결정책의 변종이다.

《신북방정책》을 《국제정세변화추진위원회》의 주진으로 추진하여 《북방정책》의 확대강화를 노린 대결정책의 변종이다.

《신북방정책》을 《국제정세변화추진위원회》의 주진으로 추진하여 《북방정책》의 확대강화를 노린 대결정책의 변종이다.

미국이 남조선피괴당국이 유라시아나타들과의 관계다각화를 기본으로 하는 《신북방정책》이라는것을 내놓고 분주함을 피우며 움직이고있다.

《신북방정책》을 《국제정세변화추진위원회》의 주진으로 추진하여 《북방정책》의 확대강화를 노린 대결정책의 변종이다.

《신북방정책》을 《국제정세변화추진위원회》의 주진으로 추진하여 《북방정책》의 확대강화를 노린 대결정책의 변종이다.

트럼프에게 차레진 피할수 없는 운명

그러한 그가 재전에서 지난 시기에 자기가 거짓진술을 하였다고 하면서 그에 대한 유죄를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 협력한 의사를 표명하였던것이다.

그러한 그가 재전에서 지난 시기에 자기가 거짓진술을 하였다고 하면서 그에 대한 유죄를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 협력한 의사를 표명하였던것이다.

그러한 그가 재전에서 지난 시기에 자기가 거짓진술을 하였다고 하면서 그에 대한 유죄를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 협력한 의사를 표명하였던것이다.

그러한 그가 재전에서 지난 시기에 자기가 거짓진술을 하였다고 하면서 그에 대한 유죄를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 협력한 의사를 표명하였던것이다.

그러한 그가 재전에서 지난 시기에 자기가 거짓진술을 하였다고 하면서 그에 대한 유죄를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 협력한 의사를 표명하였던것이다.

그러한 그가 재전에서 지난 시기에 자기가 거짓진술을 하였다고 하면서 그에 대한 유죄를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 협력한 의사를 표명하였던것이다.

그러한 그가 재전에서 지난 시기에 자기가 거짓진술을 하였다고 하면서 그에 대한 유죄를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 협력한 의사를 표명하였던것이다.

그러한 그가 재전에서 지난 시기에 자기가 거짓진술을 하였다고 하면서 그에 대한 유죄를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 협력한 의사를 표명하였던것이다.

그러한 그가 재전에서 지난 시기에 자기가 거짓진술을 하였다고 하면서 그에 대한 유죄를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 협력한 의사를 표명하였던것이다.